신계사 복원 10주년 "불교 교류와 남북화해 결과물"

민추본, 전문가 초청 좌담회서 복원 불사 의미 짚어

불교 외 정세에 긍정적 영향
"남북불교 통합, 새 출발 기점"
전문가들, 내년 분기점 전망
국면 전환 앞서 새 사업 주문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기해 신계사 보수 작업 등 남북불교 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0주년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남북 교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신라 법흥왕 5년(519년) 보운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금강산 신계사는 역사적으로 왕실 원당으로서 역할뿐 아니라 고려시대 탄문 스님, 조선시대 나운 · 대은 · 대응 스님, 근대 경허 · 만공 · 용성 스님 등 고승들이 주석한 사찰로 의미가 깊다. 6.25전쟁 때 건물이 모두 소실됐지만, 2004~2007년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을 중심으로 복원 불사한 후에는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당시 조계종 · 조불련과 현대아산 등 남북 관련 단체들은 약 60억 예산을 투입해 대웅전, 3층 석탑, 만세루, 산신각, 극락전 등을 발굴 · 복원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 일지

1999.03.	북경 남북불교 대표 실무회담
2001.02.	신계사지에서 복원 기원법회 봉행
2003.01.	조계종-조불련 신계사 복원 불사 합의
2003.10.	신계사 복원 불사 금강산 남북공동 실무협의
2003.11.	남북공동 시 · 발굴 조사 실시
2004.04.	신계사 복원 착공식 봉행
2004.06.	조계종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회 발족
2005.02.	전체 복원 조감도 마련
⋮	
2007.10.13.	신계사 복원 준공식 봉행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2004~2007년 신계사 복원 불사를 공동으로 추진했다. 사진은 2004년 11월 20일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 모습.

민추본은 "신계사 복원불사는 남북불교 교류 역량의 결집이자 통합의 기점"이라면서 "4년간 불사는 남북화해 협력을 통해 관개 개선을 추구한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추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실은 신계사 복원 불사가 남북화해협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족통일의 여정에서 남북불교의 통합은 여기서 또 다시 출발하는 기점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계사를 거점으로 한 남북불교 교류는 경색된 남북정세로 인해 9년째 단절된 상황이다. 2015년 8.2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민간 교류가 잠시 재개됐을 때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공동법회'를 봉행한 것이 2008년 이후 유일하다.

2004년 신계사 복원불사 도감으로 파견됐던 제정 스님(現 불교문화재연구소장)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지 않았다면 신계사 보수 작업은 물론, 내금강 장안사 복원까지 이어졌을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민간 교류의 길이 열려 남북이 함께 보수 · 복원 과정에 착수하는 것이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내년을 남북교류의 분기점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북미 관계 여파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지만,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대북 사업 재개 준비에 착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집행위원장은 "신계사는 불교 교류뿐 아니라 남북의 정치적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남북 관계가 내년에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많은 민간단체들이 예측한다. 불교계는 지금부터 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한다. 신계사 복원을 뒤이을 새 사업 구상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도 "위기는 있지만 내년에는 대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서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신계사는 남북 교류 거점으로 작용할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내금강 불교 유적 복원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다. 내금강 인근에는 장안사 터와 마하연사 터, 서산대사비, 표훈사 등 내로라하는 불교유적들이 즐비해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훼손돼 보수 및 복원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7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지관 스님이 "남북불교 공동으로 내금강 불교 유적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정세 영향으로 무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내금강 불교유적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의 관심도 매우 컸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정세가 급격히 기울며 시범관광에서 그친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내금강 불교유적이 복원되면 한국 불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민추본부장 법타 스님도 "장안사를 비롯한 내금강 불교유적은 복원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포교원,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 나서

오는 12월 말 본격 개통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도등록 사이트를 9년 만에 개편하고 있다. 개편 사이트는 10월 31일 중간보고에 이어 12월 말 개통 예정이다.

신도등록 사이트는 2003년 10월 사찰과 신도들의 신도등록 편리성을 위해 포교원이 개발했다. 이번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2008년 개편 작업 이후 9년 만으로 기존 종무행정 프로그램들과의 오류를 바로잡고, 일선 종무행정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 신도등록 사이트와 달리 웹을 이용해 사이트에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오류 현장을 바로잡고 사이트 접속 시 로그인부터 데이터 관리까지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 인터넷 신도등록 사이트 개편은 신도들이 보다 편하게 신도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효 스님 저술 역주서 발간 '봇물'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효 번역서 출판 잇달아

〈기신론소기회본〉 등 12종
원효 저술 정본화 사업 성과

원효 스님(617~686)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원효 스님 찬술 저서 모두를 한글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그 성과 중 일부를 내놨다. 학술적이고 대중적인 원효 스님의 저서 12종이 5권으로 묶여 번역된 것.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원효 스님의 저서를 한글로 번역해 그 일부를 5권의 책으로 묶어 출판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원효 탄신 1400주년 맞아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사업 일환으로 원효 저술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번역서 발간은 그 성과 중 일부다.

올해 1차로 출판된 문헌은 △〈범망경보살계본사기〉 상권(역자 한명숙) △〈대승기신론소기회본〉(역자 은정희) △〈미륵상생경종요〉외 (역자 성재헌 외) △〈대혜도경종요〉 외 (역자 성재헌 외) △〈열반종요〉(역자 이평래) 등 12종 5책이다. 원효 저술 중 분량이 긴 문헌들은 1책으로 출판했고, 분량이 짧은 문헌들은 성격별로 분류해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출판했다.



한글 번역된 〈대승기신론소기회본〉(왼쪽)과 〈범망경보살계본사기〉 표지.

이번 역주서는 그간 적집됐던 원효 저술에 대한 정본화 성과와 관련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역주서에는 문헌별 상세한 해제가 수록됐다. 여기에 그간 진행됐던 연구 성과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면서 "특히 원효의 진찬 여부 등에 논란이 있는 〈유심안락도〉와 같은 문헌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제기된 연구 성과를 최대한 소개함으로써 원효에 대한 연구가 보다 높은 지평에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효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이평래, 은정희 등 전문학자들이 역주자로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내년 출판 예정인 원효의 산일문 및 집일본에 대한 역주는 그간 한국에서 소개된 적이 없었던 원효의 저술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원효의 다양한 저술들은 특히 일본 고대 불교도들의 저술 가운데 많이 인용됐다. 현재 이들을 추출하여 원효 저술의 내용과 규모를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작업의 성과들이 출판되면,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원효 저술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불 스님 주축 '불교희망연대' 만든다

10월 25일 발기인대회…선대위원 대거 참여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나섰던 수불 스님과 선거대책위원들이 뜻을 모아 '불교희망연대'를 출범했다.

불교희망연대 준비위원회는 10월 25일 서울 AW컨벤션 아젤리아룸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종책 개발과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등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사진〉 주요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불교콘텐츠 개발 △불교 사회문화운동 및 남북관계 지원 △종책연구소 설치 △승가인재 양성 지원 △간화선 세계화 및 해외 수행체계 공유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 법인 등록과 인터넷언론사 창립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내 창립할 예정이다. 이날 준비위는 불교희망연대 고문으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회장으로 前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추대했다.

고문 수불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날 한국불교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역대 선각자들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큰 발심과 분심을 내어 마침내 법등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면서 "구종, 구불교의 원력에 동의하고 함께하실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의 의지처가 되자"고 당부했다.



중앙종회 법륜승가회장 법보 스님과 前해외교구장 휘광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불교희망연대가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을 비롯해 종삼 · 미산 스님 등 총무원장 선거대책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